

얼큰한 라면에 종이컵 가득 와인... “먹을만 하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드라마 속 장면 ‘신성한, 이혼’

솔직해질 시간이다.

먼저 얼큰하게 끓인 라면에 물컵이든 맥주컵이든 와인 팔팔 부어서 같이 마신 사람 손들어 보자.

다음은 소주. 보이는 와인잔 하나 꺼내와 투명한 소주를 따라서 진짜 향이 달라지는 지 잔을 빙빙 돌려본 사람은 나머지 손도 마저 들자.

두 손 다 들고 말했다. 드라마 ‘신성한, 이혼’을 보고서다. 피아니스트였던 이혼전문 변호사는 근사한 와인셀러에서 소주를 꺼내 와인잔에 따라마시고, 이혼을 앞둔 남자는 라면으로 쓰린 속을 달래면서 와인을 반주로 벌컥벌컥 들이킨다. 이 무슨 괴상한 조합인가 싶는데 어느새 따라하고 있고, 또 오묘하게 잘 어울린단 말이다.

병 밑바닥의 흠에 엄지손가락을 딱 끼우고 레스토랑의 소믈리에처럼 능숙하게 따른다. 와인잔을 한두 번 돌린다. 스웰링이



드라마 ‘신성한, 이혼’ 화면 캡처.

다. 코 가까이 가져다 향을 한껏 들이마시더니 맛을 최대한 느낄 수 있게 공기와 함께 ‘후루루루’ 마신다. 남은 술은 마개를 꼭 닫아 와인셀러 안에 다시 넣어둔다.

소위 배운 남자의 와인 마시는 장면 같지만 와인잔을 채운 것은 바로 소주였다.

“거 알아? 소주도 디캔딩이 된다. 공기랑 섞 만나면서 목 넘김이, 카.”

승소 소식에 사무장이 소주가 달다고 하자 변호사는 잔이 예술이라며 이렇게 답한다.

공기와의 접촉면이 넓어지면 와인의 맛과

향이 더 좋아지게 된다. 디캔딩의 원리다. 소주를 따르니 특유의 알콜향이 더 넓게 퍼지며 코를 찔렀지만 뭔가 증명할 수 없는 순함과 목넘김이 있다. 작은 소주잔으로 한 입에 탁 털어내야 제 맛이라고 하는 사람만 아니라면 와인잔에 소주먹기도 해볼만 하다.

라면과 와인의 조합은 사무장이 만들어낸다. 별거 중인 그에게 아내의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한다. 청양고추 듬뿍 넣은 갈갈한 라면조차 한 입 넘기기 힘든 상황인 셈.

할머니에게서 딸로 주인장이 바뀐 라면집은 잔술 매뉴가 소주에서 와인으로 바뀌

었다. 한 잔에 오천원. 와인이라도 마시니 막혔던 속이 풀린다. 아예 와인병째 받아든다. 잔당 가격이니 주인이 볼 새라 넘치기 직전까지 팔팔 따라 급하게 마신다.

와인을 마시는 장면 중에 지금까지 가장 슬펐던 것은 영화 ‘사이드웨이’였는데 이 드라마도 못지 않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테이블 아래 숨겨두고 슈발블랑을 콜라컵에 따라 먹는거나 라면에 숨도 못쉬고 와인을 삼키는 거나 우열을 가리기 힘든 슬픔이다.

와인 네 잔에 라면 하나. 라면이 3500원인데 잔 와인값으로 2만원이 나왔다.

라면도 얼큰한 국물요리니 와인 과 최상의 마리아주는 포기. 다만 같이 마실만 하나고 묻는다면 ‘오케이’다. 조미료 감칠맛에 맞게 와인도 다소 진득하고 향신료 느낌의 레드와인이라면 더 좋다.

변호사는 와인잔엔 소주를 따라 마시더니 막상 와인을 마실 때가 되자 종이컵에 마신다.

“신기한 거 하나 알려줄까. 이, 와인이 종이컵에도 디캔딩이 된다?”

종이컵에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이지만 맛은 좋지만 하다. 역시 와인, 아니 대부분의 술이 그렇지만 정해진 격식보단 어떤 기분에서 누구와 함께 마시는 지가 더 중요하다. /smahnt@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초인은 주체적 의지에서 탄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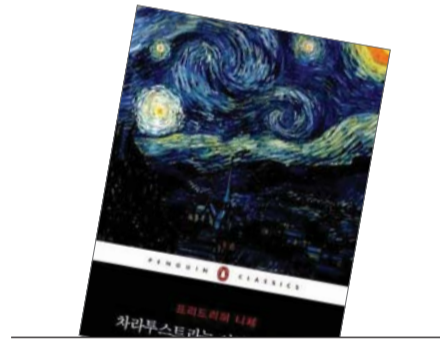
‘신은 죽었다’는 니체가 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문장이다. 니체는 인간이 신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힘으로 오롯이 서서 주체적인 삶을 꾸려가야 한다고 주장한 철학자였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는 그의 이런 사상이 잘 담겨 있다.

동굴에서 수양하던 차라투스트라는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하산하기로 마음먹는다. 그가 동굴 밖으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줄타는 광대의 공연을 기다리고 있던 군중에게 위버멘쉬(초인)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차라투스트라는 “초인이 되려면 대지에 충실해야 한다”며 “그대들에게 하늘나라의 희망을 말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마라. 그들은 알든 모르든 독을 섞는 자들이다”고 사람들에게 당부한다.

그는 인간 정신에는 총 세 단계의 변화가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는 낙타에서 사자, 사자에서 아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낙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무거운 짐을 싣기를 바란다. 무거운 짐을 지고 총총히 사막으로 들어가는 낙타처럼, 정신은 자신의 사막으로 서서히 침잠한다. 어느 날 쓸쓸한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정신이 사자로 진화한 것. 사자는 자유를 쟁취해 사막의 주인이 되려 한다. 사자는 ‘너는 해야 한다’를 거부하고 ‘나는 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차라투스트라는 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홍성광 옮김/펜켄클레스코리아

는다. “나의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정신에 왜 사자가 필요한가? 체념과 경외를 아는, 짐을 지는 낙타로는 왜 만족하지 않는가?” 그는 자답한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일, 그것은 오직 사자의 힘으로 가능하다”

사자보다 강한 존재는 아이다. 아이는 사자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 아이는 순진함이자 망각이고 새로운 시작이자 유희다. 저절로 굴러가는 바퀴이고 최초의 움직임이며 신성한 긍정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창조의 유희를 위해서는 신성한 긍정이 필요하다”며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원하고 속세를 등진 정신은 자신의 세계를 획득한다”고 이야기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나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책.

500쪽. 1만3000원.

/김현정기자 hjk1@

저널리즘 선언

저널리즘은 위기에 빠졌다. 사람들은 저널리즘이 권력 감시, 진실 추구의 기능보다 당파성 강조, 허위 정보 양산, 갈등 조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사람의 수는 해마다 줄고 있고, 의제 설정 능력은 소셜미디어에 빼앗겼다.

바비 젤러 외 2명 지음/신우열, 김창욱 옮김/오월의봄

저자들은 소수 엘리트만을 대변하는 행태, 현실과 동떨어진 언론 규범,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대중, 이들 세 가지 접점을 다시 살피고 재규정해야 저널리즘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168쪽. 1만4800원.



지리를 알면 보이는 것

모든 사람은 공간에서 살아간다. 고로 공간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는 일은 곧 인간을 연구하는 것과 같다. 인문지리학은 ‘인간은 공간을 어떻게 바꾸고, 공간은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학문이다. 공간의 과학을 이해하면 일상의 경관에 어떤 상징이 숨어 있

정은혜 지음/보누스

는지, 돈은 어디에서 모이고 어디로 퍼지는지 등을 알 수 있다. 모든 공간에는 숨겨진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을 해석할 때 비로소 ‘현상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288쪽. 1만8900원.



우리가 싸우는 이유

사람들은 매일 타인과 갈등을 겪는다. 다른 세대라서, 성별이 달라서, 다른 편이어서 그런 걸까? 책은 사람들이 왜 싸우지도 모르면서 싸운다고 지적한다. 외로움이 혐오의 원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보인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는 동시대에 살지만 각자

고승연 지음/플랜비디자인

의 세계에 갇혀 산다. 미디어 필터버블과 에코 챔버로 인해 감정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현실에서의 고독을 온라인에서 풀려고 시도한다. 책은 집단 간 갈등 증폭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가 분열이 아닌 조화를 이루며 살 방법을 제시한다.

246쪽. 1만7000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개학 초 한달간 ‘스쿨존’ 과속·불법주차 4만7000건 적발 /사진 뉴시스
- ▲ 서울 일반고 지원율 양극화...4년 새 ‘26배-62배’

- ▲ 돌봄 대기 ‘0’ 선언...모듈러·비정규직 ‘충동원’ 관철될까
- ▲ 문 닫는 사립대에 장려금...“해산 유도 효과” vs “먹튀 우려”



- ▲ 서울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사진 뉴시스
- ▲ ‘빗물받이 집중 청소’...서울시, 침수 예방 대책 시행